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81권 1호 2024년 2월

vol. 81, no. 1, February 202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논총 81권 1호(2024. 2. 28)

/

차례

기획논문	한국문학과 소수자 내러티브	
	황순원의 「일월」을 통해 본 백정의 문화사	김종욱 9
	학병의 사명과 ‘위안부’의 운명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1975~1981)를 중심으로	이지은 33
	비전향장기수와 ‘간힌 몸’의 삶, 그리고 정동	이소영 67
	유미리의 언어 의식과 ‘다공성’의 글쓰기	김지윤 105
	유령을 위한 레시피 그레이스 M. 조의 『전쟁 같은 맛』을 통해 본 한국계 미국인의 한국전쟁 기억과 재현	나보령 143
	젠더가 서사를 재현할 때, 퀴어-쓰기의 한 사례 트랜스젠더 작가 김비론	노태훈 181
일반논문	Collective Memory and Collective Burials	Sebastian Müller 215
	Iron Age Chamber Tombs in Jerusalem and the Kingdom of Judah as Mnemonic Devices	
	Pythagorean Socrates in Aristophanes’ <i>Clouds</i>	Kim, Minsoo 245
	The Tangible Valid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useums	Zoh, Minjae 273
	The Gochang <i>Pansori</i> Museum, South Korea	

	영화 「춘향뎐」(임권택 감독, 2000년)의 서사 검토	오수창 299
	‘조선만화’(朝鮮漫畵)의 한 기원 도리고에 세이키(鳥越靜岐)의 도한 배경과 회화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송민호 335
서평	진지전의 돌파구 제시: 송진우, 동아일보계열,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조명 윤덕영(2023),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해안, 597쪽	류시현 365
	한글, 타자기, 공병우 김태호(2023), 『한글과 타자기: 한글 기계화의 기술, 미학, 역사』, 역사비평사, 320쪽	조형래 379
	최초, 그리고 최고의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개론서 박홍식(2024), 『중세와 그리스도교: 중세는 신앙이 지배한 시대였는가?』, 홍성사, 535쪽	정기문 393

Journal of Humanities
Vol. 81 No. 1, February 2024

/
Contents

Special Topic: Minority Narratives in Korean Literature

The Cultural History of Butchers through Hwang Soon-won's "The Sun and the Moon" (*Ilwol*)

Kim, Jonguck | 9

The Mission of the Student Soldiers and the Fate of the 'Comfort Women'

Lee, Jieun | 33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the Life of the "Trapped Body," and Affect

Lee, So-young | 67

Yu Mi-ri's Linguistic Consciousness and Writing of 'Porosity'

Kim, Jiyeon | 105

Recipes for Ghosts

Korean American Memory and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War through Grace M. Cho's *Tastes Like War*

Na, Boryeong | 143

When Gender Represents Narrative, a Case for Queer-writing

About Transgender Author Kim Bi

Roh, Taehoon | 181

Articles

Collective Memory and Collective Burials

Iron Age Chamber Tombs in Jerusalem and the Kingdom of Judah as Mnemonic Devices

Sebastian Müller | 215

Pythagorean Socrates in Aristophanes' *Clouds*

Kim, Minsoo | 245

The Tangible Valid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Museums

The Gochang *Pansori* Museum, South Korea

Zoh, Minjae | 273

A Review on the Narrative of the Movie *Chunhyang* (Director Im Kwon-taek, 2000)

Oh, Soochang | 299

One Origin of *Choseon Manga* (朝鮮漫畫)

Centered on the Background That Torigoe Seiki (鳥越靜岐) Came to Korea an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in Japanese Illustration Community of the Time

Song, Minho | 335

Book Reviews

A Breakthrough in the War of Position: A New Insight on Song Jin-woo, the Dong-A Ilbo Group, and Neo-liberalism

Review of *The World and Colonial Joseon's National Movement: The Formation of Korean Liberalism, Song, Jin-Woo and the Dong-A Ilbo* by Yoon, Duk-Yung

Ryu, Si-hyun | 365

Hangul, Typewriter and Kong Pyung-woo

Review of *Hangul and Typewriters: The Technology, Aesthetics, and History of Hangul Mechanization* by Kim, Tae-ho

Cho, Hyung-rae | 379

First Introduction and Best Introduction to Medieval Christianity

Review of *Medieval Times and Christianity* by Park, Heung Sik

Jung, Gi Moon | 393

人文論叢

81권 1호

2024년 2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한국문학과 소수자 내러티브

21세기를 전후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범주가 크게 확대되면서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도 ‘소수자’라는 개념은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인종이나 젠더,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장애와 질병 등 소수자는 주류로부터 배제, 차별받는 ‘타자’로 정의될 수 있고, 이는 정치적인 전복과 문화론적 탈주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개념이 되기도 했다. 일찍이 들뢰즈는 ‘소수자-되기’의 과정을 통해 파편화된 연속체이자 다양체로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노마드’적 주체를 내세운 바 있고, 이후 뒤스 이리가레, 도나 해러웨이, 로지 브라이도티 등의 페미니즘 철학자들에 의해 소수성(minority)은 기존의 역사적·철학적·정치적 사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비/탈인간, 신유물론, 젠더/퀴어 이론 등 새로운 사상적 조류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학사에서 소수자는 어떻게 형상화, 서사화되어 왔을까. 20세기를 통과하면서 문학이 근대적 예술 장르로 자리하고, 문학의 언어와 제도가 공고하게 형성되는 와중에도 주류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특히 한국문학은 근현대사의 역사적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나름의 고투를 끊임없이 벌인 치열한 현장의 텍스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연구의 시선은 늘 그것이 얼마나 ‘주류적인 것’을 재현해 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머물러 왔다. 어떤 작품이 그려 내는

한 시대의 사회적 현실, 한 작가가 가진 사상적, 존재론적 인식,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소수자 내러티브’가 한국문학에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토론하면서 찾아내고 분석해 낸 결과가 다음과 같다.

김종욱의 논문 「황순원의 「일월」을 통해 본 백정의 문화사」는 흔히 “가장 학대받던 계급”으로 일컬어지던 백정의 삶을 그린 여러 소설을 분석하고 있다. 황순원의 「일월」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면서도 「재물춘」(이상협 변안), 「봉화가 켜질 때에」(홍사용), 「낙동강」(조명희), 「임거정」(홍명희) 등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소설과 「샌님마님」(박화성), 「노을」(김원일) 등 해방 이후에 발표된 소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백정의 정체성이 신분과 함께 직업, 계급,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지은의 「학병의 사명과 ‘위안부’의 운명: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1975~1981)를 중심으로」는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청년들, 즉 학병과 ‘위안부’가 해방공간과 6·25전쟁을 거치며 어떻게 다른 역사적·사회적 위치를 부여받는지 살펴본다. 논문은 제국을 대타항으로 삼은 ‘학병-위안부’의 연대의식이 ‘제국-식민지’의 역학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식민주의와 단절한 새로운 세대로부터 시작하려는 「여명의 눈동자」의 서사적 기획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군·위안부의 존재마저 은폐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은 ‘학병세대’로 대표되는 일제말기 청년의 표상에 ‘위안부’라는 존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역사의 ‘상징’이 됨으로써 역사에서 배제되는 ‘기억의 정치’의 역설적인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이소영의 「비전향장기수와 ‘간힌 몸’의 삶, 그리고 정동」은 비전향장기수들이 ‘간힌 몸’으로서 겪어야 했던 육체적 고통에 천착함으로써 그들을 소수자로서 재정위하고자 한다. 그들이 평균 30여 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내재한 거대한 폭력성과 잔인함을 놓쳐 버

리는 순간, 우리는 뇌리에 깊숙하게 박힌 반공주의와 분단 콤플렉스로 그들을 ‘빨갱이’로 규정해 버리는 우(愚)를 범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들의 고통을 다룬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언어화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들을 대상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이 글은 ‘간헐 몸’의 전력이 있는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창작과비평사, 1990)을 주된 텍스트로 삼는 동시에 비전향장기수들의 구술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소수자의 고통을 언어화하는 윤리적 기획의 난관과 모험을 극복해 내고자 최선을 다한다. 나아가 이 글은 비전향장기수들의 ‘간헐 몸’을 기억하는 것이 최소한의 윤리적 실천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윤의 「유미리의 언어 의식과 ‘다공성’의 글쓰기」는 1990년대 이후의 재일(在日)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유미리 소설에 나타난 언어 의식과 글쓰기의 특징을 분석한 글이다. 유미리는 그간의 재일 문인이 소설에 빈번하게 형상화해 온 성원권의 법적 지위 문제나 이동권의 제한과 같은 물리적인 제한과 금지를 소설의 제재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일상과 미시적인 사회화 과정이 어떻게 재일 디아스포라로서의 취약성을 인지하게 하는지를 소설화한다. 2000년대에 작가는 자신의 외조부를 모델로 삼아 그의 과거를 선조적으로 재구축하려는 작가적 욕망을 장편소설 『8월의 저편』을 통해 드러낸다. 이 논문은 『8월의 저편』이 한글과 일본어로 동시에 연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판본의 비교 작업을 수행한다. 그 결과 『8월의 저편』이 작가 개인의 역사를 투명하게 밝히려는 초기의 계획은 완수하지 못했지만, 대신 다른 소수적 개인들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나보령의 「유령을 위한 레시피: 그레이스 M. 조의 『전쟁 같은 맛』을 통해 본 한국계 미국인의 한국전쟁 기억과 재현」은 한국전쟁 생존자이자, 전후 기지촌의 성노동자였으며, 미국으로 결혼 이주한 디아스포라 여성이자, 조현병자였던 어머니에 대한 회고록을 한국계 미국인의 한국전쟁 기억과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글이다. 이와 관련해 어머니의 유령적 기억과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그레이스 조가 실험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재현 전략을 살피는 한편, 어머니의 기억의 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제시되는 음식의 역할, 그리고 음식과 요리 행위에 깃든 적극적인 행위성에 주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그레이스 조가 직면하고 있는 엄마의 기억을 당사자를 대신해 말하는 곤경, 즉 주류의 위치에서 주류의 언어로써 소수자의 언어와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번역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간극 및 해석 불가능한 영역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작가의 욕망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노태훈의 「젠더가 서사를 재현할 때, 퀴어-쓰기의 한 사례: 트랜스젠더 작가 김비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한 트랜스젠더 작가 김비를 다루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 낸 그는 자신의 젠더적 경험을 토대로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 번역 등 젠더 지평을 넓히는 일에 힘을 쏟기도 했다. 김비는 많은 퀴어 서사가 자신의 근원적 기억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젠더퀴어를 등장시켜 미래적 연대나 희망을 그리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축해 낸다. 또한 이를 위해 상투적이고 익숙한 플롯으로 소설을 구성하면서도 결말의 의외성을 통해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의 변화를 서사의 구조로 보여준다. 특히 장편 『개년이』를 통해 보여 준 거칠고 적나라한 욕설의 재현은 트랜스젠더 당사자 작가가 젠더적 악의로 가득 찬 성적 기호를 마음껏 전유함으로써 해방과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자아낸다. 나아가 청소년 인물들의 재현과 퀴어가 점유하는 시/공간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작품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 여섯 편의 논문이 다루고 있는 작품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이 한국문학의 소수자 내러티브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문학사가 누락해 왔던 다양한 마이너리티의 양상을 포착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해 해방 공간과 전쟁, 이산(離散)을 거쳐 21세기까지 시공간을 넓힌 것은 이 논의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문

학사로 읽힐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기도 하다. 본 기획을 비롯하여 더 다양한 소수자 내러티브가 가시화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노태훈

